CALS newsletter No. 35 2016. 6. |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 newsletter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공식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발행인 : 정철영, 편집인 : 이인복
편 집 : 대외협력 · 홍보위원회
(강문성 · 신찬석 · 안동환 · 여환명 · 윤희연 · 이기훈 · 이은진 · 조철훈)

동북아 그린바이오의 중심을 향하여

– 평창캠퍼스, 산학협력 중심지로의 발돋움 –



산학협력동 및 기능성약선두유사업단 제조 공장 기공식



실험목장 방문한 성낙인 총장

동북아 그린바이오 분야의 대표적 허브를 목표로 2014년 준공된 평창캠퍼스는 아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은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그린바이오 분야의 연구실적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소속 전임교수 1인당 연구비는 3.5억원 수준으로, 짧은 역사를 감안하면 우수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산학협력단지 1단계 부지 조성이 2015년 완료되어 40여 개 기업과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산학협력동 및 기능성약선두유사업단 제조공장의 기공식을 개최하여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한편 평창캠퍼스에 위치한 농생대 목장은 서울대 계란 판매를 통해 교육 · 연구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법인화 이후 우리 대학의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 계란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저스트레스 사육, 질병관리, 최고품질 사료 활용 등으로 기존의 계란과는 차원이 다른 품질을 추구하고 있다. 평창캠퍼스는 올해 6월로 준공 2주년을 맞았다. 불과 2년만에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평창캠퍼스의 향후 발전상이 더욱 기대된다.

농학교육 110년… 9월 10일 기념식 개최

올해로 우리 대학은 1906년 농림학교로 출범 이래 110주년을 맞으며, 또한 서울대학교는 개교 70주년을 맞는다.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우리 대학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농학교육 110년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철영 학장, 최윤재 교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9월 초에 기념책자 '농학교육 110년사(가칭)'가 발간되며, 9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200동 2층 로비에서 기념 사진전 및 70대 뉴스 선발전이 개최된다. 또한 9월 10일에는 대강당에서 우리 대학 및 농생대 동창회 주최로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농학교육 110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여러 동문 및 교직원, 외부 인사 등이 참석하여 농학교육 110년의 역사를 되짚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향후 농생대의 혁신을 위한 제언 등이 있을 예정이고, 축하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서울대 중창단 및 농악 동아리 두레, 밴드 샌드 페블즈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그 외 오찬 및 축하소연도 마련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참석이 기대되고 있다.

〈주요내용〉

1~3면_농생대 헤드라인
4~5면_농생대 인사이드
6~8면_Interview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10면_농기자가 간다
11면_기금출연 소식
12면_농생대 사람들

송인홍 교수,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부임


송인홍 교수(지역시스템공학 전공)

송인홍 교수가 2016년 3월 1일자로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지역시스템공학 전공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송인홍 교수는 본교 농공학과에서 학부과정을 마친 뒤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University of Arizon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University of Minnesota,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본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등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본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부교수로 봉직한 바 있다.

〈송인홍 교수 : **모교의 교수라는 큰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인사드립니다. 몇 굽이 안 되는 인생의 시간이지만, 돌아보면 선택의 순간에는 늘 고마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생으로서 교육의 길로 들어서는 마당에 앞으로 누군가의 선택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자로서 전문 분야의 학문 발전에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새로운 환경에 대해 두려움이 앞서지만, 서경(書經)의 "無逸"이란 말처럼 편한 길보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매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험목장, 2015년 부속시설 평가 '발전도 우수상' 수상



실험목장이 학내 32개 부속시설을 대상으로 한 자체평가보고서 및 현장실사를 통한 2015년 제7차 부속시설평가 결과 '발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5월 17일 시상식을 가졌다.

실험목장은 교육 · 연구 지원시설의 단계적 확충을 통한 목장 첨단화 및 활성화된 미래형 스마트팜 구축, 최고 수준의 동물복지 구현과 사육시설 최적화 등의 사업 추진과 청정육종핵군목장 지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이것이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실험목장의 이번 수상은 교육 · 연구 및 산학협력 등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교육 · 연구지원 및 공익적 수익사업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립형 교육 · 연구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윤대섭 동문, 제9회 서울대 발전공로상 수상



윤대섭 동문(성보화학 회장, 농공학 49)이 6월 28일 제9회 서울대 발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자는 윤대섭 동문, 박정혜 여사, 양두석 ㈜두성테크 회장, 유태용 한국방재협회 명예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이다. 수여식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윤대섭 동문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사위(이병휘 동원통상 사장, 사진 왼쪽에서 2번째)가 대리 수상하였다. 윤대섭 동문은 농공학과에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에 매진해오고 있으며 재단 설립 전부터 30여 년간 113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고, 최근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83억원을 추가로 쾌척하여 총 200여 억원을 대학 발전에 기부하였다. 또한 학교법인 성보학원 · 성보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육성에 공헌해오고 있다.

30년 역사의 농생대 학생회를 살펴보다

젊은 지성들의 치열한 고민과 열정, 농대 학생회 출범으로 이어지다

서울대 농대 학생운동의 역사는 수원지역 민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이다. 학생 주도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집단적 · 조직적 · 지속적으로 표출한 사회변혁운동인 학생운동은 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서 민주화를 외쳤다. 수원 시내 곳곳의 집회와 시위투쟁은 6월 항쟁으로 발전했고 마침내 군사독재를 물리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사회모순을 극복하려는 이러한 선배들의 고민과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에서도 1984년 직선 학생회가 출범하였는데, 이 당시 학생회를 제1대 학생회(당시 회장 축산학과 배극환 동문)로 부르고 있으며 현재 제32대 학생회로 이어지고 있다.

농생대 학생회 구성

이탁규(지역시스템공학 · 14) 학생회장이 이끄는 현 농생대 학생회는 집행부와 단과대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부는 결정사항을 직접 집행하고 단과대 운영위원회는 예산이나 사업 그리고 농생대 학생회 이름으로 참여하는 외부 연대 활동 등에 대해 인준하는 일을 한다. 단과대 운영위원회 대의원은 2개 학부(농경제사회학부, 응용생물화학부) 회장과 나머지 11개 전공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행부에는 1명의 집행국장과 1명의 사무국장, 6명의 팀장, 14명의 팀원이 있다. 사업 진행은 집행부에서 아이디어 회의 후 사업계획을 단과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단과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등을 승인하면 다시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학생회는 주로 농생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념일에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또한 학생회장은 농생대 학생들을 대표하여 토론과 기자회견 등에 참여하고 사회적 이슈에 의견을 내기도 한다.

농생대 학생회 업적 및 향후 계획

이탁규 회장에게 현 학생회의 대표적인 업적과 활동계획을 들어보았다.

– 현 학생회 대표 업적

올 1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새터를 다녀왔다. 또 3월에는 신입생들을 위한 실험복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하고, 농생대 사상 처음으로 중고책 장터를 열었으며,


농생대 학생회 회의 장면

다가올 장터 시즌을 맞아 물품대여 사업도 시작했다. 4월에는 공약 사업이었던 SNS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만우절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대학 술자리 문화 개선을 위하여 '강권 없는 농생대 만들기'라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장터 문화 개선을 위해 〈농생대 장터 사용 설명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농생대 라운지 U-Space 공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우산 대여사업 '농약'도 실시했다. 우산과 장부를 함께 비치해 약속을 적고 반납하게 했는데 회수율이 70%가 넘었다. 성년의 날에는 장미와 향수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배포했다. 5월 25일에는 농생대 축제를 진행하였고, 종래 장터 위주의 구성을 벗어나 놀이공원같이 연출하여 호평을 받았다. 현재는 학생회가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소통 창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행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자치게시판을 주문 제작하고 있다.

– 방학 중 활동계획은?

여성휴게실을 보수하고자 의견 수렴 중이며 방학 중에 보수를 시작할 것이다. 방학 중 자취방을 내놓는 학생과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목표는 '농생대 모든 학우들이 아는 학생회'

농생대 학생회는 그동안 잦은 연석회의와 부실운영으로 학우들에게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했다. 이탁규 학생회장은 '취임 당시 저에게 인수인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모든 농생대 학우가 학생회가 어떤 집단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 올해 학생회의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학우들의 복지를 위해 힘쓸 것이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학우들을 대표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학생회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학생기자단 제4기 **나혜지**, 제5기 **이상욱**, 제6기 **김수연**



스승의 날 기념 농생대 명예교수 초청

5월 10일 200동 대회의실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대학 명예교수 일행을 초청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명예교수 일행은 먼저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서울대 본부 주관 간담회에 참석한 뒤 우리 대학 대회의실로 이동하였다.

이날 행사는 교무부학장의 개회사 이후 학장 인사, 명예교수들의 고견 청취 순으로 이루어졌고, 폐회 후 현직 교수들이 명예교수들에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고 기념촬영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 대학 명예교수 총 28분이 참석하였고,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농업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정을 두터이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일리노이주립대학교 Ronald Jacobs 교수, 농산업교육과 특강

산업인력개발 분야 체계적 현장직무 교육훈련(S-OJT)의 창시자이자 미국인적자원개발학회(AHRD: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회장을 역임한 일리노이주립대학교 Ronald Jacobs 교수가 5월 12일 농산업교육과에서 "Knowledge Work and Developing Employees to Perform Knowledge-Based Tasks"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Jacobs 교수는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산업인력개발분야의 지식근로자를 변화되는 시대에 맞추어 재정의하고, 오늘날 지식근로자에게 적합한 교육훈련 개입기법으로 체계적 현장직무 교육훈련(S-OJT)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기업 화웨이 등 전 세계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몇몇 기업들을 사례로, 그들이 체계적 현장직무 교육훈련(S-OJT)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실무적으로 지식근로자의 업무 맥락에 맞게 특화된 교육훈련을 생성해 내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학생들에게 사고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016 농생대 대동제

우리 대학 학생회는 5월 25일 농식광장(75-1동 앞)에서 농생대 봄축제(대동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동제는 농대생의 피가 흐른다는 의미에서 '혈중농도'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고, 지금까지의 축제가 장터 위주 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트램펄린, 버블슈트, 풀장, 로데오, 주사위 게임 등을 설치해 놀이공원같이 연출하여 학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농생대 동아리들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고 각 학과 장터에서 소세지, 칵테일, 빙수 등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하여 축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학업 및 취업활동에 바쁜 학생들에게 좋은 재충전 기회가 되었다.



농생대 축구동아리 휘모리, 총장배 구기대회 축구부문 준우승

우리 대학 축구동아리 휘모리가 5월 3일부터 31일까지 대운동장에서 치러진 총장배 구기대회 축구부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5월 31일 싸커21(중앙동아리)과 격돌한 대망의 결승전에서 휘모리의 안희준 선수가 전반 12분 선제골을 넣었으나, 전반 21분과 연장 후반 5분에 싸커21 송기석 선수에게 동점골과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1:2로 경기를 마쳤다. 이번 경기는 저녁 9시에 열렸는데도 많은 선배들이 학교로 찾아와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등 동문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휘모리 부주장 허재효 선수는 "좋은 팀워크로 강한 상대들을 뛰어넘고 준우승을 이뤄낼 수 있었고, 계속 응원을 아끼지 않은 동아리원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교수님 등 휘모리 구성원들께 감사드린다. 누군가와 함께 또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KAFREE 프로젝트 유럽 5개 대학 관계자 방문

농업 · 자원경제학 전공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EU 농식품 자원경제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약자: EKAFREE) 유럽 대학 관계자들이 6월 1일 우리 대학을 방문하였다. EKAFREE 사업은 한-EU 교육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양측 교육부로부터 지원되는 대학원 공동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국내 3개 대학(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충북대학교)과 유럽 5개 대학(벨기에 겐트대학교, 이탈리아 피사대학교, 슬로바키아 농업대학교, 독일 훔볼트대학교, 프랑스 아그로캠퍼스 대학교)이 참여하고 있다. 본교를 방문한 유럽 5개 대학 교수 및 관계자 9명은 이날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복수학위제 참여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유치 및 교육 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국가지원으로 농업 및 자원 경제학 전공 대학원생의 국제적 감각 향상 및 전공 심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제3회 CALS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제3회 CALS 창업경진대회가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개 팀이 지원하였고, 4월 1일과 8일에 사업계획 수립 및 시장분석 등에 관한 창업교육이 있었다. 그리고 5월 12일부터 27일에 거쳐 서류심사와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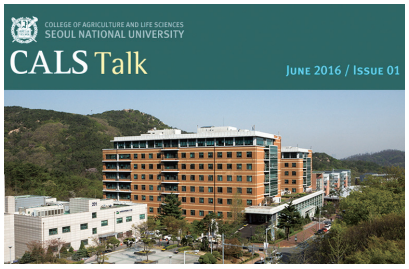
시상식은 6월 7일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블루베리 생과 브랜딩 및 잎차 개발'을 주제로 참가한 '열림'팀(농경제사회학부 김정우, 경제학부 유소영, 정치외교학부 백송희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었다. 그 외 최병표 학생(산업인력개발학)이 우수상을, 이강토 학생(원예생명공학과), '꽃 생각하는 사람들'팀(원예생명공학과 홍원기, 한국산업기술대 디자인공학과 김한주 학생)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016학년도 상반기 교수학사협의회

2016학년도 상반기 교수학사협의회가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 롯데씨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교수학사협의회는 우리 대학 발전방향과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개최되고 있다.

1일차 행사는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의 환영 및 특강으로 시작되었고, 이어 각 행정실의 업무보고 및 현안사항 발표가 있었다. 그 후 우리 대학의 향후 발전 계획 CALS VISION 2020에 대하여 박은우 교수가 발표하였고, 이후 참석자들의 종합 토론 시간을 가졌다. 2일차 행사는 조별활동으로 이루어져 한라산 등반, 트래킹, 필드트립 등의 각종 활동을 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우리 대학 교수들의 학교발전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농생대 영문 뉴스레터 CALS Talk 창간호 발간

우리 대학 사상 최초의 영문 뉴스레터가 발간되었다. 제목은 CALS Talk로 정해졌으며, 창간호 내용은 학장의 발간사, 농생대 연구성과, 농생대 학생활동, 농생대 소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문 뉴스레터는 연 2회 이메일로 발송되며, 주된 수신자는 QS 농 · 임학분야 랭킹 상위권 대학 인사, 농 · 임학 관련 주요 학회장, 외국인 동문, 농생대 교직원 등이다. 새로 구독을 원하는 독자는 http://calseng.snu.ac.kr에 접속 후 About CALS → CALS Promotion → Newsletter 순으로 들어간 뒤 상단의 subscribe here를 클릭하고 지시에 따르면 되고, 과월호를 열람하려면 상단의 Other Newsletter를 클릭하면 된다. 이번 영문 뉴스레터 발간이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대학 랭킹 상승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이모작스

4월 1일 프로야구시즌 개막을 신호로 바야흐로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투수와 타자의 숨막히는 신경전, 총알처럼 날아드는 직구, 살아 움직이는 듯한 변화구, 물흐르듯 이어지는 송구, 타자의 힘찬 방망이가 날아드는 백구를 맞추는 순간… 야구는 아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매력을 선사하는 스포츠다. 그러나 우리 농생대에도 전부터 야구 동아리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농생대 야구 동아리 이모작스 취재를 위해 농생대 학생기자단 이상욱 기자와 송이레 기자가 나섰다. 농생대를 졸업하고 현재 본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대욱(농경제 09) 선수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이모작스의 영원한 매니저 박진영(농경제 09) 동문은 회사일이 바빠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수화기 너머로 이모작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팀이 하는 모든 경기는 하나의 작품이다

농경제사회학부 야구 동아리로 시작해 지난 2015년 농생대 동아리로 승격된 이모작스. 기자는 이모작스가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 궁금했다. 농대 동아리니까 아마도 '二毛作'에서 동아리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역시나 여기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특이한 팀 명칭의 유래는 이렇다. "'이' 팀이 하는 '모'든 경기는 하나의 '작'품이다."에서 이모작을 따왔고, 이 뒤에 복수형 어미 s를 붙여서 '이모작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 이 명칭은 창립 멤버인 08학번 신재근, 이상현 선수가 지었다며 박진영 매니저가 웃으며 말했다. 08학번 농경제과 학생들이 캐치볼을 하며 시작했던 이모작스도 어느덧 창립 8년차를 맞이하였다. 창립 초기에는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경기 결과도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팀원들이 꾸준히 훈련하고 각자 실력 향상에 힘을 써준 덕에 옛날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하는 매니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보통 경기가 끝나면 치킨에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서로 경기내용을 되짚으며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동아리를 떠올리면 군기가 심하다는 오해들을 하지만 그런 점은 전혀 없어 보였다. 이모작스 얘기만 나오면 웃음꽃이 환하게 번지는 김대욱 선수의 온화한 얼굴에서 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여전히 작품을 만드는 졸업생 선수와 매니저

이모작스는 초창기 멤버들이 지금까지도 주축이 되어 팀을 이끌고 있으며, 주말이면 멤버들의 열기가 운동장을 뜨겁게 달군다. 02학번부터 15학번까지 현역 팀원들의 연령대도 다양하고 각자 하고 있는 일도 가지가지다. 김대욱 선수는 경기에서 공을 던지는 것도 즐겁지만, 경기를 통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졸업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끈끈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소중하다고 했다.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이모작스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먼 길을 달려와 함께 한다는 박진영 매니저에게서 팀에 대한 진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선수들 모두 야구를 너무나 좋아하고 팀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당연한 소리를 했지만, 거기서 숨김없는 진심이 전해졌다. 세대교체가 잘 되지 않아 어린 멤버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팀원들의 찰떡 호흡과 뜨거운 야구 사랑은 작품을 만드는 데 충분해 보였다.

누구든지 오세요

다음 매니저로 어떤 친구가 들어왔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김대욱 선수와 박진영 매니저 모두 매니저보다는 선수가 급하다고 웃었다. 야구를 조금이라도 좋아한다면 누구든지 대환영이라 했다. 최근 2년간 신입 회원 모집에 신경을 못 쓴 것이 아쉽다며 김대욱 선수가 눈을 반짝였다. 일단 이모작스에 들어오면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모르는 것도 잘 가르쳐줄 수 있다며 농생대 학생들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생기자단 제4기 **이형민**, 제5기 **이상욱**, 제6기 **송이레**


김대욱 선수와 인터뷰


연습 준비 모습


연습이 끝나고

TOP보다는 ONLY가 되어라, 누보



김창균 동문(농학과 · 90)

김창균 동문(농학과 · 90)은 친환경 자재 연구 · 제조 · 유통기업 ㈜누보(NOUSBO)를 창업하여 현재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잡초와 작물생리학을 전공한 그는 제초제 연구소였던 '경농'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창업의 길로 뛰어든 김창균 동문은 2003년 비전코리아, 2007년 누보를 설립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주)누보는 세계 최고의 농업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이룬 것이 없다는 겸손의 말로 시작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도전정신과 젊음의 결실

2003년 그의 첫 둥지였던 경농을 떠나게 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비록 수중에는 5백만 원 남짓한 퇴직금 밖에 없었지만, 새로움에 대한 도전정신과 젊은 패기는 불확실한 창업의 문 앞에 선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창업 초기부터 준비한 농업관련 사업부문의 수익이 처음 발생한 곳은 바로 골프장이었다. 2004년 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한 골프장 수요는 골프장 관련 자재를 다루고 있던 김창균 대표에게 행운이었다. 경쟁이 없었던 상황에서 골프장과의 거래는 사업 종자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미국 'Rain Drip'사와 함께 출시했던 제품의 유통실패와 국내 대기업과의 거래를 경험하면서 그는 자체적인 유통조직과 제조공장, 무엇보다 중앙연구소를 가진 기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2007년 누보를 설립하게 되었다.

변화도 창조다

누보의 경영이념은 '인재를 중시하는 창조적 경영으로 농업 혁신을 통해 세계 인류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이 부분에서의 핵심가치가 인재, 창조, 글로벌화에 있다고 하며 그중에서 창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파헬벨의 캐논을 변주해 UCC 스타가 된 한 기타리스트를 언급하며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 또한 창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누보는 이러한 창조적 마인드로 여러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규산질 비료 '논에퐁'이다. 규산질 비료는 벼의 조직을 강화시켜 병충해를 막아주므로 논농사에는 필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1ha 당 3천kg 가량의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난점이 있어 농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규산질 비료의 문제점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그는 물속에서 발포하는 특성을 가진 규산질 비료 '논에퐁'을 개발한다. 논에퐁은 한 알만 던져도 그 주위 12m까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1ha 당 20kg만 뿌려도 된다. '논에퐁'은 농촌진흥청,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어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유기농자재 품질인증도 받았다.

또한 친환경 관주용 비료로 각광받고 있는 '엔구아노'도 누보의 창조적 마인드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유기질 비료를 관주(구멍을 파서 약액을 주입하는 약제살포 방법)한다는 발상 자체가 '유기질 비료는 추비(작물의 생육 도중에 주는 비료)를 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엔구아노'를 사용하는 경우 약 2주에 한 번만 관주를 하면 되므로, 기존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경제성도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친환경 비료의 특성상 작물 및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누보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CAC(중국 국제농용화학품 및 식물보호 전시회), 태국 HORTI ASIA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국내 시장 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시야에 넣고 활동하고 있다. 대표 상품 논에퐁은 현재 일본, 중국, 미국 등 16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논에퐁 보급이 국가단위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원료 혁신을 통해 만든 유기질 비료 '트리플', 독일 바이엘과 최초로 직접 계약을 따낸 골프장 경계제초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누보의 성공을 엿볼 수 있다.

농대 후배들에게

김창균 동문은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당장 시작해라. 매사에 '그리고'를 접목시켜라.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이것 그리고 저것', 두 가지 모두 가능하게 만들어라.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고 목표를 높게 잡아라." 김창균 대표가 힘주어 하는 말에서 그의 성공 요인을 볼 수 있었다.

학생기자단 제5기 **박유빈**, **이상욱**, 제6기 **김동준**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열여섯 번째 주인공은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손영환 교수!



손영환 교수
(지역시스템공학 전공)

손영환 교수는 1993년 우리 대학 농공학과 졸업 후 1995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근무 후 2006년 본교에서 농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 뒤 2010년 본교 지역시스템공학 전공 교수로 부임하여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교수님이 현재 전공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영환 교수는 대학 진학시 의학계열과 공학계열을 고민하다 엔지니어를 꿈꾸며 농공학과에 입학했고, 2학년 때 농업토목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지역시스템공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손 교수는 "막상 공부를 해보니 농업토목이 재미있었다."라며 농업토목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농업토목을 선택하고 싶다."라며 자신의 전공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교수님의 대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손영환 교수는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좋아하는 운동을 하며 보낸 대학생활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한 야구부 활동에 대한 추억을 풀어놓았다. "수원캠퍼스 운동장에서 매일 야구 연습을 했다. 여름방학 때는 부산에 내려가 합숙을 하며 부산대 야구부와 교류가 있었다. 야구부를 통해 만난 친구들과 지금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한다."라며 즐거웠던 대학생활을 회상했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손영환 교수는 학생들과 많이 소통하고 싶다면서, "틀려도 좋으니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학생의 자세를 강조했다. 손 교수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정말 잘하고 집중력이 높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잘 잡으면 다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며 "다들 좋은 능력이 있으니까 큰 꿈을 가져 기회가 왔을 때 잡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도서 추천



『디자인에 집중하라』 (저자 : Tim Brown)

『디자인에 집중하라』는 디자인적 사고를 갖춘 혁신가가 되는 방법과 미래 경영, 미래 디자인의 역할을 보여주는 책이다. 디자인적 사고는 직관적인 능력, 일정한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 감성적 의미 전달 능력, 기능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매개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 총 5가지로 구성된다. 이 책에서는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느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손영환 교수는 "우리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책으로 학생들이 보기에도 부담이 없다."라며 이 책을 추천하였다. 그는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댐을 계획, 설계할 때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교수는 "적극적으로 멀리 보고 살아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관찰하라. 그리고 디자인이든 연구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언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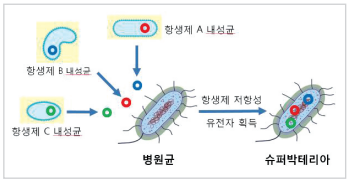
손영환 교수에게 다음 호의 주인공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추천한 주인공은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장판식 교수. 장판식 교수의 추천도서는 다음 호에 공개!

학생기자단 제5기 **임다빈**, 제6기 **신혜선**

〈2016. 01. 22. 이뉴스투데이〉

식약처 "식중독균 · 슈퍼박테리아 대처 길 열어"

식약처, 식중독균 유전자 이동 규명 기틀 마련



식중독균의 유전자 이동에 대한 원인과 대처방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중독균의 유전자 이동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평적 유전자 이동 데이터베이스(HG-Tree)'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HGTree 데이터베이스는 미생물 유전체 2,472개의 정보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 · 변종 식중독균과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생물의 분류 · 진화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연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식약처의 '식중독균 유전체 연구사업단(단장 최상호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했으며, 국제학술지인 '뉴클레익 애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 임팩트팩터=9.112)'에 게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전체 연구를 통하여 식중독균 신속 분석법을 개발하고 미지의 식중독균을 검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연 기자

〈2016. 03. 23. 동아사이언스〉

서울大, 경구백신 흡수효율 증진시키는 신개념 치료법 개발

단백질 주사 후 백신 먹으면 효과 ↑


최윤재 교수


조종수 교수

국내 연구진이 경구백신의 흡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

최윤재, 조종수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팀은 소화장관에서 체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기존 경구백신의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치료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염된 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인성 질병은 주로 감염 부위인 점막 등에만 국소 면역을 주기 위해 경구백신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최 교수는 "소장에 랭클 단백질을 주사한 후 경구백신을 투약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기존 경구백신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만큼 경구백신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학술지 '바이오머트리얼스(Biomaterials)' 1월 23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권예슬 기자

〈2016. 04. 19. SBS뉴스〉

첫 토종 효모로 만든 우리 빵…"더 쫄깃해요"


서진호 교수

〈앵커〉 빵을 만들 때 쓰는 효모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대와 한 제빵업체가 누룩 속 미생물 속에서 토종 효모를 발견해 빵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연구원의 손길에 잘게 부서지는 건, 발효가 잘 된 누룩입니다. 이 누룩 속 수만 개의 미생물 가운데는, 하얀 쌀알처럼 보이는 효모도 있습니다. 이 천연 효모를 빵 반죽에 넣고 숙성을 시켰더니, 제빵용 이스트를 쓴 것과 똑같은 빵이 완성됩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이렇게 제빵에 적합한 천연 효모를 찾으려고, 11년 동안 1만 개 넘는 토종 미생물을 수집했습니다.

[서진호/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 누룩을 찾기 위해 선 시골의 장터를 헤맸고, 우리가 미생물 길을 들인다고 하는데, 제빵 특성에 맞는 조건으로 순화시키는 과정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토종 효모를 쓴 빵은 일반 이스트로 발효한 빵과 식감은 비슷하지만 보다 오랫동안 쫄깃한 상태를 유지하는 특징이 발견됐습니다.

서울대와 제빵업체는 이번 토종 효모 관련해 국내외에서 모두 15건의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관련학계는 고유의 발효 미생물 종균이 거의 없는 국내 발효식품 산업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정삼 기자

Reporter's Page 농기자가 간다

신설코너 '농기자가 간다'는 농업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통해 미래 농업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또 이들의 이야기가 장래를 고민하는 농생대 학생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코너를 기획하였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농기자가 간다'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업 IoT 스타트업 '엔씽'을 만나다

'농기자가 간다'가 맞은 첫 번째 손님은 엔씽(N.thing)이다. 엔씽은 농업분야에서 IoT[1]를 개발하는 신생 기업이다. 센싱 기술을 이용해 흙 속에서 농사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의미있는 형태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엔씽은 농민 개인의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객관적 데이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쉽고 똑똑한 농업을 꿈꾼다. 엔씽의 대표적 제품으로는 스마트 화분 플랜티(planty)가 있다. 플랜티에는 센서가 내장되어 스마트폰으로 온도 · 습도 등 화초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물통이 부착되어 있어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화초를 키울 수도 있다. 엔씽은 국내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 'Be Global 2015'에서 중국 스타트업 육성기업인 트라이벨루가 상을 받는 등 국내 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농기자는 언론을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엔씽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엔씽을 방문하였고, 엔씽의 남세기 이사(이하 남)가 바쁜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었다.

농기자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남 안녕하세요, 저는 엔씽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창업 멤버이기도 한 남세기입니다.

농기자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엔씽의 시작이 궁금한데, 창업은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남 우선 전자과 출신인 엔씽 김혜연 대표가 삼촌을 따라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 IoT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김혜연 대표가 IoT와 농업을 이을 생각을 하여 화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작은 작은 화분이 었지만 엔씽은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경영'이라는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이가 농부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농기자 모두가 농부가 된다니 인상적입니다. 현재 완성된 제품으로는 '플랜티'가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남 사실 판매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킥스타터'에서 10만 달러의 선주문을 받았고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 판매하는 중입니다. 오랜 시간 개발했지만 첫 제품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간혹 심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죠. 한국에는 여름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엔씽 남세기 이사와 함께

농기자 오, 정말 기대되는걸요? 그런데 초기 홈페이지도 영어로 되어 있고, 'life(엔씽에서 개발한 재배일지 기록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의 98%가 외국인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애초에 외국시장을 목표로 시작한건가요?

남 그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외국, 특히 미국 뉴욕에서 가드닝(gardening) 문화가 발달해있고 시장 규모도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점이 밖으로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언젠가는 한국에도 가드닝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믿습니다.

농기자 하지만 취업난이니 저녁이 없는 삶이니 하는 것을 보면, 가드닝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과 수요는 좀처럼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엔씽이 지금 미국 시장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농기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농생대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남 '농업'에 관해 고민하거나 '농업'을 직접 하는 친구들이 매우 적습니다. 농업에 관한 생각을 깊이 해온 친구가 있다면 엔씽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엔씽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www.nthing.net/ko/planty

학생기자단 제5기 **이상욱**, 제6기 **신예현**

1) Internet of Things의 약자. 사물인터넷이라고도 칭함. 각종 사물을 인터넷과 연결시키는 기술.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역대 누적금액 : 24,767,450,657원

기금출연 (2015 . 12. 01. ~ 2016. 06. 30.) — 당기 누적금액 : 4,140,324,555원

1억원 이상	
일동장학금(윤대섭, 윤태현, 일동통상㈜, 윤수현, 박연진)	3,376,400,000
정윤환	300,000,000

1000만원 이상	
익명3	80,000,000
(주)농우바이오	50,000,000
(주)져스텍	30,000,000
대한사료주식회사	28,620,00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3,614,960
(주)져스텍	20,000,000
김명희	16,200,000
이형주	15,000,000
이철영	12,000,000

1000만원 이상	
JPO 일본특허청	11,678,000
故 김성수	11,350,000
(주)이앤티	10,000,000
김주원	10,000,000
신경수	10,000,000
이병일	10,000,000
조영철	10,000,000
최윤재	10,000,000
최준원	10,000,000

100만원 이상	
(유)도성개발	9,000,000
이동근	6,780,000
㈜고추와육종	6,000,000
최동하	6,000,000
(주)비앤피인터내셔널	5,000,000
㈜프로챌코리아	5,000,000
(주)누보	4,000,000
조경학과 84학번 동기회	4,000,000

100만원 이상	
(주)네이처그로	3,000,000
(주)브리텍	3,000,000
(주)새길조경	3,000,000
(주)케미다스	3,000,000
(주)한성T&I	3,000,000
익명1	2,916,655
채영제	2,500,000
오평환장학금 기본 적립	2,274,400
임상준	2,100,000
(주)밥스누	2,064,000
(주)코스켐	2,000,000
농식품경영유통최고위과정 4기	2,000,000
박소희	2,000,000
송재홍	2,000,000
㈜이지바이오	2,000,000
최희천	2,000,000
정욱주	1,500,000
강경하	1,000,000
고려바이오㈜	1,000,000

100만원 이하	
박승제	700,000
익명4	700,000
강문성	583,310
김 준	583,310
손영환	583,310
이인복	583,310
최진용	583,310
김성배	560,000
우제성	350,000
익명2	350,000
현진호	350,000
박정호	300,000
강상호	250,000
최인규	249,990
송인홍	200,000
하기호	140,000
서진석	120,000
서민영	70,000
손창은	70,000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서울대 농생대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부금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의 엄정한 관리 하에 우리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 제고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가 창의적 역량과 굳건한 의지로 무장한 '선(善)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 우리 농생대 및 조국의 발전, 나아가 온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어,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 이사장 정 철 영

[출연방법 안내]

1.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출연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www.snu.or.kr) 안내 참고

· 문의 및 연락처 : Tel. 02-880-8004, 871-8146 / Fax. 872-4149

2.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 발전기금 출연

· 참여방법 : 참여 신청서 작성 후 무통장 입금

· 계 좌 : [농 협] 301-0098-3482-21 (예금주 : 농생대교육연구재단)

· 혜 택 : 연말소득공제, 공간 네이밍, 우리대학 주최 행사 우선 초청, 우리대학시설 이용서비스, 기부자예우프로그램 등

· 문의 및 연락처 : Tel. 02-880-4510 / Fax. 873-5579

People 농생대 사람들

[동문동정]

▶ **허건양** 동문(원예학 77)이 2월 1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윤준상** 동문(농업교육 82)이 3월 1일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학장으로 선임되었다.
▶ **조윤제** 동문(식품공학 82)이 3월 30일 제10회 포스코청암상 과학상을 수상하였다.
▶ **박 정** 동문(농생물 81)이 4월 20일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 **이학재** 동문(축산학 83)이 4월 20일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 **강병원** 동문(농경제 89)이 4월 20일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 **이현규** 동문(식품공학 82)이 4월 25일 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장으로 선임되었다.
▶ **이준원** 동문(농업교육 81)이 6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선임되었다.

[교수동정]


이전제 교수

▶ **이전제 교수**(산림과학부)가 2월 23일 목재문화진흥회 제2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최윤재 교수

▶ **최윤재 교수**(농생명공학부)가 2월 26일 제1회 카길한림생명과학상을 수상하였다. 최 교수는 창의 · 융합적 전략으로 친환경 기능성 축산식품을 개발하고 제품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창후 교수

▶ **전창후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2월 26일 한국원예학회 주최 '제10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좌장 손정익 교수)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원예분야 6차산업 발전 전략'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나승일 교수

▶ **나승일 교수**(농산업교육과)가 3월 7일 교육부 2기 정책자문위원회 총괄위원 겸 평생직업교육분과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이무근 명예교수

▶ **이무근 명예교수**가 3월 15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8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이학래 교수

▶ **이학래 교수**(산림과학부)가 4월 22일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동창회 소식]

▶ 2016년 상록의 날



동창회는 5월 21일 농생대 201동 101호에서 2016년 상록의 날 정기총회 및 82학번 주관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9대 이현수 동창회장이 신임 제10대 류관희 동창회장에게 동창회기를 전달하는 이 ·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2016년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은 이헌목(농화학 64) 동문, 서학수(농학 65) 동문, 조종수(잠사 66) 동문, 김종덕(농생물 81) 동문이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에 취임한 이무근(농생물 60) 동문을 비롯하여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정(농생물 81), 이학재(축산 83), 강병원(농경제 89) 동문들에게 축하패가 전달되었으며, 2016년 새해인사회를 준비한 강정모(농경제) 65학번 대표와 2015년 상록의 날 준비로 수고한 박석근(농학) 81학번 총대표에게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이후 82학번 주관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는 최도일(농생물 82) 동문이 진행하여 명예교수님들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증정하였다.

★ 소식지를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T. 880-4538, jhw1234@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서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공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학술림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3)339-5901 F.(033)339-5909
농학도서관 T.880-4774~5 F.884-0182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농업공작실 T.880-4619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식품공장 T.880-4824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8-484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세균의사소통창의연구단 T.880-4686 F.873-2317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 역량 강화사업단
T.880-4631 F.873-3565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육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5 F.886-4898
농식품경영·유통최고위과정 T.880-4735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25354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홈페이지 http://greenbio.snu.ac.kr/
T.(033)339-5680 F.(033)339-5689